


보 도 자 료

	◆ 2024. 9. 24.(화) 배포	
	◆ 총 3쪽 (본문 2쪽, 붙임 1쪽)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훈 글로벌협력실장	☎ 032-770-8430
	조하나 글로벌협력실 선임행정원	☎ 032-770-8432
	강민구 홍보실장	☎ 032-770-8631
	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	☎ 032-770-8637

대한민국, 2030년 남북극 통합 극지학술대회 개최국 선정 전 세계 극지 과학자 2천여 명, 우리나라에 모여 남북극 공동연구 논의한다

-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나라가 2030년 남북극 통합 극지 학술대회 개최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남북극 통합 극지학술대회(Joint SCAR-IASC Polar Conference 2030)는 남극과 북극 연구자들의 국제기구인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와 국제 북극과학위원회(IASC)가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공동 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대회이다.
-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와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는 '제5차 세계 극지의 해(International Polar Year, 2032~2033)*'를 앞두고 2030년에 '남북극 통합 극지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전 세계 극지 연구자들이 약 50년에 한 번씩 연대해 남극과 북극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캠페인(1차:1882~3, 2차:1932~3, 3차:1957~8, 4차:2007~8), 제4차 세계 극지의 해에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60개국이 참여
- 양 국제기구는 2022년 12월부터 개최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우리나라와 스위스, 스웨덴 등 3개국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지난 8~9월에 진행된 투표 결과, 우리나라가 양 기구 모두의 지지를 받아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46개국)과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23개국)이 별도로 투표를 진행하되, 각 기구가 선정한 개최지가 다른 경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우리나라가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은 “얼어붙은 최전선, 함께 여는 내일 : 지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협력(Frozen Frontiers, Shared Futures: Collaborations to Forge Our Planet's Tomorrow)”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급격한 전지구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착상과 해답을 위해 미래 극지연구의 계획을 새로 쓰는 이정표적인 기회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회원국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국제 극지연구·협력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형평성, 다양성, 포용성(Equity, Diversity, and Inclusion)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세대와 비주류 집단의 참여를 독려하는 전략이 유효했다. 또, 국제 공항이 위치한 인천을 개최 도시로 제안, 참가자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면서 탄소배출 절감까지 개최 전략에 포함시킨 점도 이목을 끌었다.
- ‘2030년 남북극 통합 극지학술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2천 명 이상의 극지 과학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개최국으로서 연구주제 방향 설정 등 기획 과정부터 참여하여, 이번 행사를 극지과학 연구 분야 위상을 드높일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2030년 남북극 통합 극지학술대회는 극지 연구에 대한 대한민국의 열정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극지연구에 더 많이 관심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중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남북극에서 여러 해 동안 땀 흘린 모든 분과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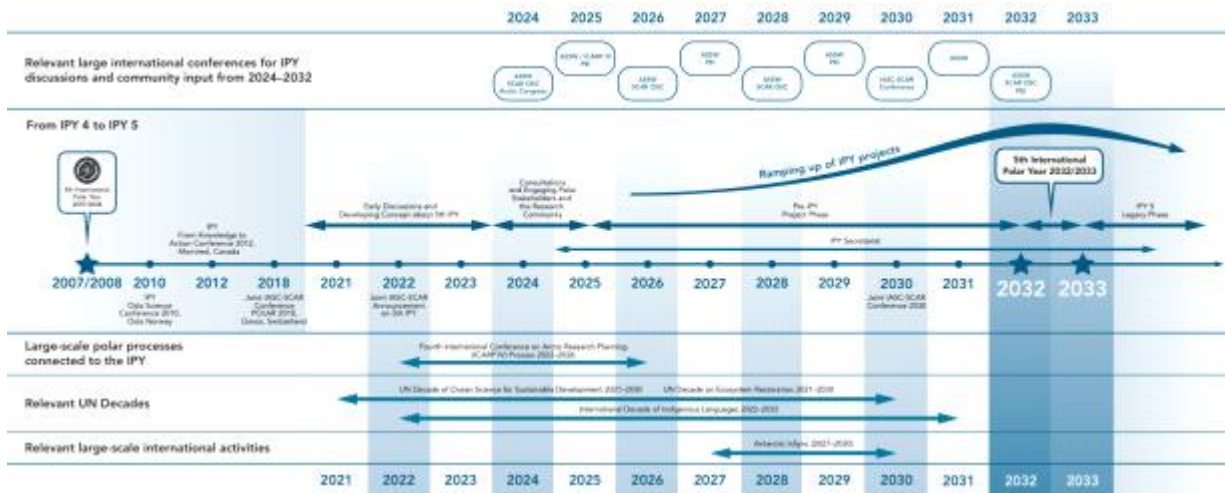
붙임1. 제5차 국제 극지의해(IPY 2032-33) 개요

□ 국제 극지의 해(International Polar Year, IPY) 개요

- (배경) 국제 극지의 해는 지구 기후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양극을 중심으로 한 대양과 대기, 대륙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을 목적으로 국가간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매 50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음.
- (연혁) 1882-83년(1차), 1932-33년(2차), 1957-58년(3차), 2007-08년(4차)에 이어 제4차 이후 25년 만에 제5차 국제 극지의 해(2032-33년)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급격한 기후변화, 극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전 지구적인 이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활동 및 관측의 시급성을 느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제5차 국제 극지의 해(IPY, 2032-33) 계획

- (진행 목적 및 기획위원회 구성) 제5차 국제 극지의 해는 연구활동 조율과 신규 연구사업 수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 IASC, SCAR, WMO, ISC, UArctic, IASSA, APECS 등 주요 남·북극 과학기구 등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 하고 있음. 국제 극지의 해가 2032-33년 2개년에 걸친 이유는 남·북극 각각의 연구 활동 주기를 온전히 포함하기 위함이며, 2026년부터 점차 연구 활동을 늘리고 다양한 학술대회 및 회의체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연구 역량을 동원할 예정임.
- (통합학술대회 기획) 이와 연계하여 제5차 국제 극지의 해 직전인 2030년에 남·북극 대표적인 학술기구인 SCAR와 IASC가 통합 학술대회 개최를 결정하였고, 해당 행사는 주요 남·북극 연구 관계자가 모여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위한 협력 논의를 시행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제5차 국제 극지의 해(International Polar Year) 연도별 계획>